



즉시 배포용: 2020년 7월 30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 주지사, 가을 독감 시즌 전에 코로나19 접촉 추적 및 독감 예방 향상을 위한
3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 발표**

기금으로 코로나19 노출 및 사례를 조사하는 직원 증가

독감 시즌을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률을 강화하기 위해 카운티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

자금을 지원받을 카운티 목록은 [여기](#)에서 확인 가능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을 독감 시즌 이전에 코로나19 접촉 추적 및 독감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3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발표했습니다. 보조금 형태로 카운티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기금은 코로나19의 탐지, 감시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 보건부 직원 충원 능력을 늘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. 주지사는 또한 심각한 독감 시즌 발생 시 의료 시스템에 심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 전역의 독감 예방 접종률을 확대하기 위한 2백만 달러의 추가 예방 접종 기금을 발표했습니다. 카운티별 기금 조달은 [여기](#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다가오는 가을의 독감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3천만 달러의 보조금 기금을 마련하여 카운티가 이제까지 큰 효과를 보인 접촉 추적을 늘리고, 주민들에게 독감 및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한 준비를 마치도록 지원하여 독감 예방 및 백신을 늘리도록 할 것입니다."

뉴욕주 접촉 추적 이니셔티브(NYS Contact Tracing Initiative)는 카운티와 협력하여 뉴욕 전염병 관리 시스템(NY Communicable Disease Management System), 즉 컴케어(CommCare)를 사용합니다. 주 전역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기금을 받는 카운티는 모든 코로나19 조사 및 추적 활동에 컴케어를 사용해야 합니다. 기금 수여는 카운티 인구와 각 카운티의 주 전체 코로나19 사례의 비율에 대한 보충 수여를 기준으로 합니다.

뉴욕주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)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뉴욕 주민들은 지난 몇 달간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 전역의 접촉 추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현지 발병을 제어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이를 멈추고 우리가 강하게 싸워온 것을

유지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.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사례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접종할 준비를 하도록 권장합니다."

이 기금은 감염병에 대한 역학 및 실험실 수용량(Epidemiology and Laboratory Capacity for Infectious Diseases)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, CDC) 후원 협력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주지사는 접촉 추적 기금 외에도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제공한 2백만 달러를 발표하여 독감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주 전역의 지역 보건부에 배포해 모든 사람이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2020년 봄의 코로나19 비상사태는 뉴욕주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었으며, 심각한 독감 시즌이 코로나19의 다음 급증과 결합되면 이를 쉽게 압도할 것입니다. 독감은 예방 가능한 보건의료 방문, 입원 및 사망을 일으키는 이환율과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. 2019~2020년 독감 시즌에는 22,000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실험실 확진 독감으로 입원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